

해 외 출 장 보 고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농림수산분야 ODA 평가”를 위한 공여국 현지 조사

1. 출장목적

- 총리실 발주 용역과제인 “농림수산 분야 ODA 평가” 계획에 따른 공여국 현지조사 실시.
 - * ODA를 총괄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2012년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소위원회가 농림수산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당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 공여국의 범 국가적 농림수산분야 개발협력 조정 기능 파악과 농림수산 유관 부처/기관간 연계 방안 조사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호주 캔베라(Canberra)	2012.11.6-11.10 (3박 5일)

- * 총리실 국제개발협력관실 1명 동행 예정 : 용역과제 계약시 국무총리실 출장 동행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장비용은 총리실 자체 부담임.

3. 주요 내용

가. 호주

- 호주 외교부 ODA 담당부서, 농업부 ODA 관계부서 및 호주국제협력단 (AusAID) 방문 및 면담 조사: 범정부적 접근 전략(Whole of Government Approach, WGA)
 - 농업부의 개발협력은 전체 부처의 3위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농업부 예산의 약 50%가 AusAID로부터 집행되고 있고 농림수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 증가되는 추세임.

- 이는 호주의 범국가적 ODA 조정기능 강화와 부처간 파트너십 체결 ('03년 3개 → '09년 9개)에 따른 연계 강화를 통해 분절화 문제를 감소하고 있음.

- 부처간 연계 강화 방안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부처간 전문가 파견제 및 분야별 전문성 활용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참여 방식 등 조사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방문 기관	수행 업무	주요 면담자
1	11.6 (화)	KEI21	출 국	
2	11.7 (수)	외교부 한-호주 담당관 및 ODA 부서 방문	방문목적 및 일정 소개 ODA 사업 추진체계 및 외교부 역할 조사 한-호주 협력실태	외교부 - Mr. Adam Robertson 등 5명
3	11.8 (목)	농업부 ODA 담당부서 방 문 조사 AusAID: 효과성 개발부, 국제프로그램, 식량안보 담당자 면담	농림수산 ODA 현황 및 유관기관간 협의체 조사 범국가적 조정기능 강화 방 안(Whole-of-Government) 농림수산 ODA 전략 수립 및 연구 주제 파악 관계부처 연계 강화 방안	농업부 -Ms. Amy Gihot 등 7명 AusAID -Mr. Derek 등 5명
4	11.9 (금)	주호주 한국대사관 방문 캐 배라(13:10)→시드니 (14:00)	한-호주 협력실태 시드니 근교 농촌지역 시찰 출장 조사결과 및 자료 정 리	권태한 영사 김성태 영사
5	11.10 (토)	귀국		

5. 주요 조사 내용

I. 핵심요지 및 관찰사항

가. 핵심요지

- 호주의 ODA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 특히, AusAID에 범정부접근 부서(Whole-of-Government Section)를 신설(“12.3)함.
- ODA는 외교(Foreign Affairs)와 통상(Trade)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개의 기관을 portfolio로 활용하여 유기적 연계를 꾀하고 있음.
 - * 외교 및 통상관련 6개 포트폴리오는 외교부(DFAT), AusAID, 무역위원회(Austrade: Australian Trade Commission), 비밀정보원(ASIS: 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s),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수출금융보험공사(EFIC: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등임.
- 특히 모든 정책과 예산은 AusAID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전략마련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음. 즉, 전략마련은 외교부, 집행은 AusAID임. 다만, 주제별 전략(Thematic Strategies)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따라 해당부서의 참여는 필수적임. 농림수산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임.
- 또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AusAID에 ODA의 정책 및 예산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개발효과조정위원회*(DESC: 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를 두고 있음.
 - * 의장은 AusAID의 최고책임자이고, 위원회 구성은 수상실(Prime Minister's Office and Cabinet), 외교부(DFAT), 재정부(DFD: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등의 담당 차관보(Deputy Secretary)가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서 Observer로 참석함.
-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usAID, ACIAR 등의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ODA는 AusAID가 식량안보(Food Security)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농림부는 국제협력차원의 양자 및 다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 중 ODA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 분류(Classified)하고 있으며, AusAID의 요청에 따라 사업 디자인단계나 평가 단계에 개입하고 있었음. 또한, 서로 다른 사업일지라도 양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을 경우 (즉, ODA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AusAID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농림수산분야의 사업을 주제별 전략(Thematic Strategies)틀에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음(물론 DAFF와 밀접하게 연계)

* i) 농업연구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Productivity) 제고, ii) 시장활성화 및 시장접근성 강화를 통한 농촌 주민생활의 향상, iii)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원력(Resilience) 구축 등

나. 관찰사항

- 이번 방문 결과, 호주의 경우, ODA를 추진하는 데 범정부적 접근을 기본으로 개발효과성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 AusAID가 OD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적 의사결정기구인 DES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주제별 전략(Thematic Strategies)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수적이었음. 더구나 농업분야의 발전을 식량안보(Food 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하여, 호주 정부는 물론 수원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Win-Win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특히 사항 : 호주는 태평양국가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분야는 자체적으로 다수의 전문가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더구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태평양 연안국가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므로, 향후에는 수산분야 ODA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칫 연간국가의 입장에서
는 욕심으로 비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래서,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한국-호주-태평양연안국과 연계하는 삼각협
력(Triangle Cooperation)을 제안함. 특히 호주는 태평양연안의 정부간기
구(SPC: Secretariat of Pacific Community) 및 민간단체(WorldFish
Center)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으므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
로 판단됨.

II. 상세협의 내용

1. 외교부 방문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2012년 11월 7일, 15:30-17:00, 외교부 회의실)
- 참석자 : 7명
 - 호주(5명) : Mr. Adam Robertson (Director, Corporate Planning
Section), Mr. John Pilbeam(Director, Korea Peninsula and Mongolia
Section), Ms. Rita Holt(Corporate Planning Section), Mr. Dieter
Michel (Corporate Planning Section), Ms. Vanessa Lai(Korea Section)
 - 한국: 2명(권태진 선임연구위원, 임지순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팀장)

나. 주요 내용

- ODA 정책에서의 외교부의 역할
 - 호주의 ODA는 외교부에서 전략(Strategy)을 마련하고, AusAID가 실행
(Implementation)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즉, AusAID가 예산, 사업, 평
가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전략, 특히, 국별전략(Country
Strategy)은 외교부내의 본부 조직 및 해외공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AusAID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마련함.
 - 또한, 호주 정부는 외교(Foreign Affairs)와 통상(Trade)을 위해 관련된 6
개의 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즉 외교부(DFAT),
AusAID, Austrade(Australian Trade Commission), ASIS(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s), ACIAR(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FIC(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등이 그것임. 이 중, ODA는 DFAT, AusAID, ACIAR의 밀접한 협력관계

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Portfolio구조).

○ ODA관련 범정부 협의체 운영 현황 소개

- 개발효과성조정위원회(DESC: 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 2개월 단위로 열리는 ODA최고 의사결정협의체, AusAID 최고책임자가 의장으로 수상실(Prime Minister's Office and Cabinet), 외교부(DFAT), 재정탈규제부(DFD: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등의 차관보(Deputy Secretary)가 참석하여 예산, 정책 등을 결정
- 3개월 단위로 AusAID 관계자와 운영위원회(Executive Meeting)을 개최하여 협의하며, 실무회의(Working Level)는 수시로 개최

○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 Comprehensive Aid Policy Framework)의 작성과 한계

-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AusAID의 DESC(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를 통해 범정부적인 종합원조정책(2012-2016)을 수립하여, 예산 및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다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정치적 위임(Political Commitment)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연속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
- * 현재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나 '13년에 선거가 예정됨.

○ 농림수산분야의 협력

- Portfolio구조에서 보듯이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와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 차원의 논의이며, 필요시 농림수산분야 ODA를 논의함.

○ 특이사항

- 호주 외교부는 AusAID의 자금을 통해 직접원조프로그램(DAP: Direct Aid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DAP은 외교부 내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의 자금 지원사업으로 주로 마을단위의 보건, 양성평등, 농촌개발, 환경, 교육 등에 활용되며, 현지 공관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함.
- DAP 예산은 천만 달러(2011-12)로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

며, 80여개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음. 특히 중점지역이 아닌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대부분의 국가가 대상이며, 외교적 관계 및 국익을 위해 사용됨.

- 작년의 주요 성과는 농촌여성직훈사업(팔레스타인), 마을식수개선사업(나이지리아), 지속가능한농업개발사업(과테말라) 등임.
-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지원만을 하며, 직접 지원하거나 및 다자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음.

2. 농림부 방문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2년 11월 8일, 10:30-12:00, 농림부 회의실)
- 참석자 : 6명
 - 호주(4명) : Ms. Amy Guihot(Assistant Secretary, Bilateral Trade Branch), Mr. Richard Perry(Assistant Director, Japan and ROK Section), Mr. Neil Andrews(Principal Economist,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Mr. Robin Flint(Assistant Director, Market Access and Cooperation Section)
 - 한국 : 2명

나. 주요 내용

- 농림수산분야 ODA사업에서의 농림부의 역할
 - 호주 농림부는 국제협력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의 수출에 초점을 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ODA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다만, 수원국의 능력배양사업(Capacity Building)의 경우 ODA로 분류하기도 함.
 - ODA 전략의 틀 안에서 AusAID나 ACIAR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AusAID에서 필요한 자문요청(기술적 혹은 과학적 협력 등)을 하기도 함. 특히 범정부적 접근으로 정책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참여함.
- * 종합원조정책프레임워크(CAPF)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함.
- AusAID와의 협력
 - 기관 대 기관의 양해각서는 작성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관련 부서가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협력하고 있음. 특히, AusAID와 농림부의 농업자

원경제과학실(ABARES*: Australia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s Economic and Science)이 Public Sector 혹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음.

* ABARES는 우리연구원과 MOU를 맺어 상호 연구협력을 하고 있음.

- 특히, 전략적 목표 가운데 하나인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관한 주제별 전략(Thematic Strategy)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림수산분야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함.

○ AusAID, ACIAR와의 관계

- 기관별로 주된 역할(농림부는 농림분야 고유사업, AusAID는 ODA, ACIAR은 연구개발)을 각각 하고 있지만, 범정부적 접근에 따라 공통된 사안이 있으면 협력하고 있음.
-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부처에서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AusAID에서 추진하는 경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정보교환, 정기적 미팅 등)하여 추진하고 있음.

3. AusAID방문

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2년 11월 8일, 13:30-17:00, AusAID 회의실)
- 참석자: 7명
 - 호주(5명) : Mr. Derek Rooken-Smith(Assistant Director General,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Mr. Alopi Latukefu(Director, Food Security and Rural Section), Ms. Sarah Sullivan(Director, Whole of Government Branch), Ms. Jillian Rees(Assistant Director, Budget Branch), Ms. Esther Sainsbury(Policy & Program Manager, North Asia Section)
 - 한국 : 2명

나. 주요 내용

○ 주요 특징

- 각종 위원회가 범정부적 접근 차원(관련부서에서 참여)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Transparency)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원조효과성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개발효과성에 초점을 둔 ODA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위원회로 독립 기관인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개발효과조정위원회(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 독립평가위원회(Independent Evaluation Committee)가 있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비롯해,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Strategic Program Committee), 연구조정위원회(Research Steering Committee) 등이 있음.
- DESC는 범부처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는 design 단계에서 기본 concept이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연구조정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정보교환, 기초조사연구 혹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ODA 예산 배분 및 예산 확정 절차

- 종합원조정책(CAPF)에 기초하여 4년 단위의 중기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할당함. 예산 배분은 호주 ODA의 방향과 전략을 고려하여 그 원칙을 마련. 예산을 결정하는 내각 차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AusAID의 최고책임자(Director General)가 의장으로 있는 개발효과조정위원회(DESC: 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임.
- 해외사무소 혹은 본부 부서에 요청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부 검토 혹은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이 마련되면, 실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DESC에 제출하며, DESC에서 결정된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회에서 통과됨.
- 특히 사항으로 각 부서별 연구부(Research Unit)을 두고 있으며, 연구예산도 별도로 두고 있음. ODE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달(12월)에 실시할 계획임.

○ 개발효과성부(ODE: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역할

- 설립된 지 6년이 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내용은 바로 AusAID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함. ODA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DESC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대부분의 평가는 내부에서 관리하며, 외주용역, 즉 외부전문기관 혹은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추진(untied 정책에 따라 외국기관(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
- 특히 AusAID가 강조하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ODE가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ODA사업에 대한 독립평가위원회(IEC: Independent Evaluation Committee)를 두고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39개 제언 중 38개를 AusAID가 수용함.

- 2012년 5월 설립, 외부 전문가 3인(1인이 의장)과 AusAID의 Deputy DG 등 4인으로 구성되며, 매년 4회 개최(6월과 9월에 개최되었음)

○ 범정부적 접근과(WoA: Whole of Government Section)의 역할

- 금년 3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사업 디자인 단계부터 범정부적 접근방법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의사결정 및 협력의 메커니즘을 호주 ODA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를 함.
- 기본 원리와 협력메커니즘에 따른 통일된 표준(uniform standard)으로 초기 단계(initial stage)부터 범정부적 접근을 통한 사업을 추진. 특히 관련 정보가 협력하는 기관과 공유하므로 국별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함
- 정보공유는 물론 처음으로 참가하는 기관에게도 파트너십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협력의 내용이나 전략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별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분야 ODA 사업

- AusAID의 농림수산분야 ODA는 식량안보 및 농촌과(Food Security and Rural Section)에서 실시하는데, 농촌개발을 식량안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임.
- 농림수산분야 ODA는 AusAID의 다섯 가지의 주제별 전략*(Thematic Strategies)중에서 지속적인 경제개발 전략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데, 세 가지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음.

* 5대 주제별 전략은 saving lives, promoting opportunities for all,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ffective governance, humanitarian and disaster response 임.

- 세 가지 접근은 i) 농업연구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Productivity) 제고, ii) 시장활성화 및 시장접근성 강화를 통한 농촌 주민생활의 향상, iii)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원력(Resilience) 구축 등임.
- 첫 번째 목표를 위해 AusAID는 ACIAR과 협력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있음. 두 번째 목표를 위해 각종 규제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농자재 및 농산물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며, 세 번째 목표를 위해 가격보조, 연금이나 보험형태의 재정지원, 학교급식,

학교에 출석한 학생이나 건강 검진을 한 여성에 대한 현금 무상 지원 등의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함.

* 국제농업연구자문기구(CGIAR: Consul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영연방과학및산업연구기구(CSIRO: Commonwealth Science, Industry, and Research Organization) 등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도 함.